

목포시 1금고 58년만에 유치...광산구 1금고 재공모 출사표

송중욱 광주은행장 “기업·지역민 금융서비스...지역과 상생발전”

9월초 목포에 캠프 차리고 임직원 총력전 성과

광산구 1금고 2차 공모 들어가...국민은행과 2파전 될 듯

하반기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향토은행 광주은행이 58년만에 목포시 1금고를 유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광주은행은 이 여세를 몰아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목포시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목포시 일반회계와 통합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가 58년 만에 처음 변경됐다. 목포시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목포시 제1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광주은행을 낙점했다.

목포시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1금고 금융기관은 약 9000억원(2019년 예산 기준)을 2020년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1금고는 지난 58년간 기업은행이 맡아왔

다. 1금고 변경은 지난 1961년 이래 58년 만이다.

광주은행은 이번 목포시 1금고 유치를 위해 송중욱 행장을 필두로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1금고 유치에 나섰다. 특히 송 행장은 지난 9월 초 목포에 캠프를 차리고 직접 진두지휘 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송 행장은 전남지역 기업 및 지역민에게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평소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목포시 금고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설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했으며 목포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총 5124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지역 애로사항을 청취해 목포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했으며 목포 대양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을 믿고 1금고를 맡겨준 목포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목포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민을 위한 질 높은 금융서비스제공과 지역밀착경영에 힘써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해 나가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58년 만의 목포시 1금고 선정의 여세를 몰아 광산구 1금고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은 심의위원 명단 유출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재공모에 제안서를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금고 선정에 국민은행과 함께 분쟁 당사자였던 농협이 공익은행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금



송중욱 광주은행장

고 공모에 불참키로 하면서 국민은행과 대비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광산구는 지난 10~11월 이틀간 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KB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신청해 경쟁자가 없어 2차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제안서 접수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이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은 5585억원 규모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한다.

만약 재공모에서도 국민은행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제1금고 운영기관은 경쟁사 없이 국민은행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기관 재공모 선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의 청탁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그 명단을 이용해 심의위원회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아 공무원, 은행원 등 총 8명이 기소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재입찰에 다시 국민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향토은행으로서 광산구민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광산구 금고 선정과정 논란에 대한 책임소재를 떠나 지역에 뿌리를 둔 공익은행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판단해 광산구 금고 선정에 불참키로 했다”며 “하지만 농협은 도농 복합도시인 광산구와 농정의 동반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지역민과 농업인을 위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주시와 5개구 등 총 6개 자치단체 중 광주시, 동구, 서구, 북구 4개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5개 시 가운데 전남도, 나주시, 여수시 3개 금고를 운영 중이며 전남 17개 군 중 영암군이 없는 곡성, 구례, 진도를 제외한 13개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2018 단체교섭 잠정 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8년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6일 금호타이어는 이날 진행된 2차 본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 실천합의서 ▲국내공장 설비투자 ▲성형수당 지급 ▲학자금 조정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노사는 광주공장 이전 때 초저연비 타이어 등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해 국내공장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내년부터 만60세 반기말로 정년을 조정한다. 자녀출산 공가 일수는 10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향후 경영정상화의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다음 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고향주부모임 ‘마을벽화 그리기’ 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회원 30여 명은 16일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원암마을을 찾아 마을 벽화 그리기 등 ‘마을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진 농협 나주시지부장, 김석기 전남본부장, 최공섭 남평농협조합장.

(전남농협 제공)

공공일자리 영향...광주 일자리 줄고 전남 늘고

9월 고용시장 날씨는 광주 ‘흐림’ 전남 ‘맑음’이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고용 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는 광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0명 줄어든 75만3000명, 전남은 2만4000명 늘어난 99만8000명이다. 고용률은 광주는 지난해 동기보다 0.5%포인트 줄어든 59.5%, 전남은 1.7%포인트 늘어난

65.0%였다.

광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농림어업이 6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이 5000명 늘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6000명), 건설업(-4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00명) 부문의 감소가 뚜렷했다.

반면 전남지역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가 3만2000명이나 늘었다. 도소

매·숙박·음식점업(-6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 농림어업(-3000명)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박기봉 호남통계청 팀장은 “지난해 광주지역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는 역대 최대였지만 올해는 그에 못 미치면서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남지역은 농업 비수기 인력이 공공부문 일자리로 몰리면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전남 조선업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2.83 (+14.66)	▲ 금리 (국고채 3년)	1.32 (+0.04)
▲ 코스닥	651.96 (+5.16)	▲ 환율 (USD)	1187.80 (+2.60)

기준금리 인하에 은행 예대금리도 내릴 듯

사상 최대치로 내려간 기준금리에 시중 은행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의 금리도 줄줄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범위 안에서 수신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중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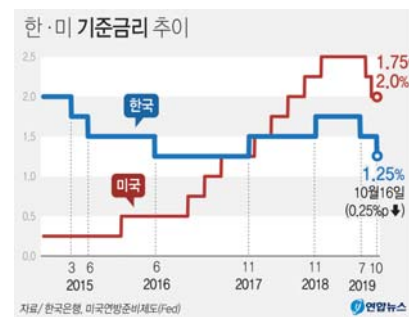
NH농협은행은 이날 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수신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고,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 인하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아직 미정이다.

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덩달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통설이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증시가 부진한 상황이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중의 자금리가 장기간 이어져온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용(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채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자금 수요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은행 금리가 떨어질수록 임대사업을 통한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면서 주택보다 상가 등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2019.10.11(금) - 20(일)

장흥군 탐진강변 및 편백숲 우드랜드

주최



주관



후원

